우리나라 유일의 화학비료 대체용 생리활성비료
1. 국내유일 특허획득의 화학비료 대체용 생리 활성비료
2. 친환경농업의 병해방제용 필수비료
3. 지력을 높이는 생리활성물질 비료
4. 양분분해 특성과 양분흡수특성의 일치
5. 입상제품비료
구성 · 문의처: 02-406-4462 (한국유기농자재센터)

2005년
10월 1일
제219호
(월간)

健康과 自然農業

환경농업의 길잡이 나방 ⊗ 채치 루더지 채치
한국산업 ☎ 773-2517

THE HEALTH & ORGANIC FARMING
농협온라인 : 016-01-168315 유기농업협회 광고 및 구독신청 : 02-406-446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신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27회 한국유기농업대회 준비돌입

11월 18일(금) 13:30시 수원 농촌진흥청 대강당과 야외에서 전국 3만2천여 회우들의 단결도모와 투철한 실천의지 다짐 대회 성공위해 농림부·농협중앙회·농어민신문사에 후원 앙청중 유기농인상·우수회우·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 추천요망

요즘 뉴스를 접하면 흔히 듣는 얘기가 8.31종합부동산대책이니 투기억제대책이니 하는 땅에 대한 말들이다.

〈장자(莊子)〉 '서무귀(徐无鬼)'에 나오는 말을 사람이 아닌 땅에 적용시켜 보면 '無以巧勝地(무이교승지) 無以謀勝地,(무이모승지) 無以戰勝地(무이전승지)'으로, '잔꾀, 모략, 싸움 등으로 땅을 이기려 들지 말라'라는 뜻이 된다. 즉 사람이 땅을 대함에 있어 모름지기 도리와 순리로써 대할 일이로되, 땅을 극복이나 지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발상자체가 천륜에 반하는 것이다.

땅에 억지를 부리지 말고 땅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가르침에 순응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다름아닌 우리 유기농들일 것이다. 땅을 투기나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농부들은 땅을 신성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중한 땅에서 생산해내는 잘익은 곡식과 과일들은 우리 농부들에겐 일반 도시민들보다 우리만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었다.

이젠 바야흐로 서늘한 기운이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본회는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회우들의 친목도모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한국유기농업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제27회 한국유기농업대회 개최

지난 '78년 7월28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작지만 희망에 가득찬 창립총회를 개최한 본회가 어느덧 4반세기를 지나 27회째의 한국유기농업대회를 오는 11월18일(금) 13:30시부터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대강당과 주변 잔디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친환경유기농업시대를 선도해온 전국 3만2천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상호간의 단결을 공고히 함은 물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과 친환경농자재들에 대한 사용성과를 나누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신속히 체득하고 호응해 나갈 수 있는 정보를 듬뿍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 농촌진흥청의 적극 후원

이번 제27회 한국유기농업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기술원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베풀어 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흔쾌히 대강당과 주위의 잔디밭에서의 개회식전과 각종 전시회 개최를 승락하고 여타의 지원사항도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유기농인상,우수회우·자회,모범공무원 표창상신

지난 2000년도에 제정한 유기농인상은 본회에서 회원들에게 시상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써 일선에서 묵묵히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본회의 발전과 자연환경보호,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면서 3만2천여회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 추천서를 작성하여 회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9월 28일(수)까지 도지부로 보내주길 바라며, 도지부에서 각 1명씩 엄선하여 모범회우·모범공무원 후보자와 함께 본회 사무처로 10월 5일(수)까지 상신시켜 주시면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시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도지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회로 직접 접수하는 서류는 심사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농림부·농협중앙회·농어민신문사 후원

이번 제27회 한국유기농업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후원표방과 박홍수 장관이 직접 임석하여 격려사를 해주실 것과 농협중앙회 역시 후원표방과 정대근 회장의 축사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농어민신문사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하여 역사적인 제27회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 사무처 임직원들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슈기농 시론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제18차 세계대회를 다녀와서

정 진 영 회장

지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오스트렐리아 아들레이드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8차 IFOAM 세계대회에는 1천여명이 넘는 세계의 유기농업관련 교수·연구관·농민단체·가공업체·유통조직·소비자대표 등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21일부터 23일까지의 3일간은 세계유기농업학회와 공동으로 토양관리·병해충방제·GMO·유기종자·농업여성문제·유통활성화·작물별 실천사례·국가별 유기농업발전현황 등 각 분과별로 360명이 발표하며 토론하는 열띤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24일 하루는 휴식을 겸하여 유기농산물 축제행사를 참관한 다음 25일부터 27일까지의 3일간은 IFOAM총회를 개최하면서 정관과 규정일부 개정, 지난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심의에 이어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킨후 신임이사진 선출과 차기총

세계의 유기농업관계자 360명의 발표와 토론실시 제19차 세계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자 노력했으나 2011년 대회유치의 가능성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회 장소를 결정하기위한 전체투표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개최하게될 제19차 세계대회를 경기도와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IFOAM회원단체인 본회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단국대 유기농업연구소·돌나라 한농복구회·흙살림·녹색유기농영농조합등의 대표와 함께 월간 친환경농업·전남농업기술원과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 대표들을 망라한 『IFOAM세계대회유치위원회』위원 12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차기대회 유치경쟁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이태리가 격돌하였는바, IFOAM회원단체의 60%가 유럽대표들이다 보니, 여비지출부담과 장시간비행에 따르는 피로가 커 연속해서 17차 캐나다의 서쪽끝 빅토리아, 18차 호주의 남쪽끝 아들레이드, 19차 아시아의 끝 한국 등으로 멀리 참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연으로 이태리에 표를 몰아주어 146표대 75표로 2008년도 제19차 세계대회 개최국은 이태리로 결정되었다.(투표권은 단체별로 1표씩임)

▶ 5면으로 이어짐

▲ 2008년 세계대회유치를 위한 한국홍보관 앞에서 IFOAM 회장인 Rundgren씨(중앙)와 기념촬영중인 한국유치위원들

▶ 한국유기농자재센타 ☎ 02-449-0677

(질소 3.5%, 인산 2%, 가리 2%, 칼슘 3%, 고토 2%, 당밀첨가)

★유기재배 전용

금수강산골드

수분함량 3% 이하의 정직한 혼합유기질비료

제품의 특징

❶ 국내유일 유기재배 전용 생리활성비료
농촌진흥청고시 제2004-18호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에 맞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혼합유기질비료이다.

❷ 유기재배 및 전환기유기재배의 병해방제용 필수비료
쌀겨,유박에서 분해되는 초산과 겨자유성분은 토양기생성 병균의 발생억제와 녹병, 도열병 등 공기전염성 병균의 발생을 억제한다.

❸ 지력을 높이는 생리활성물질 비료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질소는 물론 품질을 높이는 인산, 가리도 유효성분량대로 공급될 수 있는 복합성분이며, 특히 비타민, 아미노산, 칼슘, 미그네슘 성분이 고르게 배합된 화학비료 대체용 생리활성비료이다.

❹ 양분분해 특성과 양분흡수 특성의 일치
본 비료의 양분분해 특성은 작물의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별로 양분의 흡수특성에 일치되는 맞춤형 비료가 되어 고품질재배의 기본이 된다.

❺ 입상제품비료
입상으로 제조되어 시비가 편리하고 토양유실이 적은 완효성 생리활성비료로서 기비 및 추비로 사용한다.

■ 각 지역별 보급처 안내 ■

· 경주: 대본유기농산 054-775-7687
· 김천: 물레방아친환경 017-531-6002
· 영천: 풍영상사 054-337-5808
· 예천: [illegible] 054-654-[illegible]
· 상주: [illegible] 054-541-[illegible]
· 봉화: 춘양농협 054-672-3040
· 의성: 금성농협 가음지소 054-633-[illegible]09
· 안동: 우진농약사 054-852-[illegible]
· 남해: 남해바이오 011-834-5018
· [illegible]: 우리농약사 011-9677-8116
· 전주: [illegible] 011-551-5447
· 밀양: 유림산업 055-352-1047
· 김제: 유기농산 063-546-3550
· 남원: 풍인농약사 061-382-1909
· 무안: 해재산업 061-45[illegible]-6004
· 정읍: 풍읍유기농산 01[illegible]-275-1270
· 나주: 친환경자재정보[illegible] 018-614-3931
· 가평: 가평농약사 011-[illegible]-2383
· 논산: 부림유기농산 0[illegible]-733-6244
· 영동: 그린상사 0[illegible]-[illegible]58-1621